

이와테 국제교류

2016
Vol.

79

특집

재해 대책, 유사시의 마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01-03 고시노 슈조 교수님 인터뷰 (이와테대학 지역 방재 연구센터)

04 일본어를 모르는 외국인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05 “쉬운 일본어”가 외국인을 구한다

06 우리집의 방재 수첩,피난용품을 만들자!

뒷표시 유카리 통신 ■Jennifer Wu(제니퍼 우)씨 from 호주



재해 대책, 유사시의 마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난 지 5년이 경과됐습니다. 현내에서는 여전히 복구를 위한 활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재해 긴급 대책등이 검토되어 구체적인 시책도 강구되어 왔습니다. 미증유의 대재해로부터 무엇을 배우고 향후의 지역 방재에 어떻게 살리는가?

방재 위기 관리가 전문이시고 이와테현 방재 위기 관리감이셨던 고시노 교수님께 지금까지의 활동을 통해서 생각하신 것, 구체적인 대처, 그리고 현민에게 필요한 마음가짐등을 여쭙 봤습니다.



고시노 슈조 교수님
(이와테대학 지역 방재 연구센터)

■동일본 대지진 이후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활동을 하고 왔습니까?

자조 (自助)、공조 (共助)、공조 (公助) 라고 하지만 공조 (公助) 부분에 전문가가 너무 적다고 느꼈습니다. 자신의 목숨은 자신이 지킨다는 개인의 의식, 자주 방재 조직 의식도 물론 있으나 그것을 이끌어가는 행정측에 방재의 전문가가 부족하다고 강하게 느꼈습니다. 특히 방재는 여러 기관이 제휴하면서 대처해야 한다. 각조직에 전문가가 있으면 평소부터 제휴도 더 되고 조정도 잘 돼서 더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인재를 육성하고자 했습니다. 작년까지 “실천적 위기 관리 강좌”와 “방재 위기 관리 전문가 강좌”를 실시했습니다. 행정뿐만 아니라 의료관계자, 학교관계자, 일반자주조직의 리더, 기업관계자등이 참여해 리더나 지도자를 보좌하는 역할의 전문가육성에 주력했습니다. 반면 일반 주민들의 의식을 올리는 워크숍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3.11의 미증유의 대재해의 기억과 교훈을 어떻게 전하고 계승해 가는가입니다. “재해 문화”라고 저는 불고 있습니다. “재해 문화”를 지역 속에서 육성하며 전하고 싶다. “문화”로서 전하지 않으면 손자의 대 증손의 대까지 전해지지 않을 것 같아서 각지에서 재해 문화를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 여러 지역을 다니고 있습니다. 연안 지역의

자치단체에 기억과 교훈을 어떻게 전해야 좋을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유사시, 방재, 재해문화의 계승등, 모두 다 “커뮤니티”가 탄탄해야 활동이 계속된다. 거꾸로 말하면 커뮤니티가 탄탄하면 모두 서로 돕고 어떻게든 살아 남고 목숨을 이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도 “방재·위기관리 전문가 육성강좌” 의 풍경

■전문가 육성의 구체적인 대책은 ?

이와테 대학교 이외에 이와테 의대, 현립대, 이와테현,하천국도사무소,기상대,보도관계(이와테일보,NHK), 경찰, 자위대, 모리오카소방소, NTT, 트럭협회, 교육위원회등, 13 기관으로부터 협력을 받아 커리큘럼을 세우고 전문가 육성 강좌를 시작했습니다.올 이와테로서의 활동입니다. 의대에서는 도상훈련을 실시. “딕(DIG)”라고 해서 지도상에서 지역의 강점, 약점을 파악할 수 있다. “허그(HUG)”는 피난소 운영게임입니다. “맵머누버(MM)”는 제가 개발했습니다. 한 마디로 말하면 “도상 시뮬레이션 게임”. 롤플레이의

도상훈련에서는 모리오카시가
재해대책본부사무국을 만들어 실제 상황과 같은
역할, 대응을 할 수 있는지 해 봤습니다. 여러
기관이 제휴하는 자리로서 "지역 방재 네트워크
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3.11 전유회"도 만들어
참여하시는 분들은 주지에 찬동해 줘서 무보수로
해주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어떤 형식이 될 지
모르겠으나 이 활동은 계속해 갈 겁니다. 많은
분들의 마음을 헛되게 하기 싫고 또 아직 인재를
육성을 완전히 못 했으니깐요.



"방재·위기관리 전문가 육성강좌"에서 강연하는 고시노 교수

■재해문화에 관해서는 어떻습니까?

이와테현은 메이지시대와 쇼와 시대에 산리크(三陸)
해일이 일어나서 피해를 입었다. 그래서 비석도
있고 전문적으로 이야기를 전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잘 전해지지 않는다. 유구를 남기고 비석을 세웠다
해도 그것이 교훈으로 전해지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문화라는 것은 평소 생활하면서 의식을
하지 않아도 교훈이 계승되고 저절로 피난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와카야마현 히로가와초에서는 "벚가리의 불"
이라는 전승이 있고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렸습니다. 촌장이 돈대에서 해일이 오는 것을
보고 자기 집 벚가리에 불을 붙여 마을 주민들이
불을 끄러 달려 와서 난을 피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히로가와초에서는 매년 "벚가리 불 축제"인 해일
축제를 합니다. 날이 어두워지고 나면 주민들이
햇불에 불을 붙이고 신사까지 2km 정도 행진한다.
이 축제를 통해서 그 곳까지 도망가야 산다는 것을
의식 시키면서 문화가 되었습니다. 홋카이도
오쿠시리섬에서는 22년전 아오나에지구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 인구가 반감됐습니다.
훌륭한 기념비와 위령비가 있지만 기억과
교훈이 전해져 있는지 좀 의문이다. 이와테에서도
"재해문화"로서 기억과 교훈의 계승해야 합니다.
지역 사회에서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문화"와
"전통"으로서 남겨 두는 것이 좋을 듯하다.
리쿠젠타카타시에서는 벚나무의 묘목을 보내는 등
여러가지 모색하고 있습니다. 나무 심기 같은 것도
자기 아이가 초등학교 어느 학년이 되면 나무를
심어 재해 이야기를 이어가는 행사로 하는 등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지역마다의 형식으로 기억
· 교훈으로 전해갔으면 좋지 않을까요?

■지역 활성화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지역 활성화. 연안
지역은 약 20 퍼센트나 인구가 줄었고
오쿠시리섬처럼 더 빠른 단계에서 인구가 반감될
지도 모른다. 키워드는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지역
활성화에 참여할 수 있는지도. 저희 대학교
학생들도 그러는데 지역을 의해서 뭔가 하고
싶어도 뭘 해야 될 지 몰라하는 젊은이들이 많다.
젊이들의 활동을 도와주는 것도 행정의 역할이지요.
외국인도 그래요. 다른 시각·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같이 지역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열의를 갖고 하지 않으면 소멸돼 버린다.
일본인이 알아차리기 어려운 그들의 생각, 착상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방재에 한정하지 않는 교류를
추진하고 싶다. 지역전체가 커뮤니티를 탄탄히
구축해야 될 것 같아.

■재류 외국인에게 방재의식의 보급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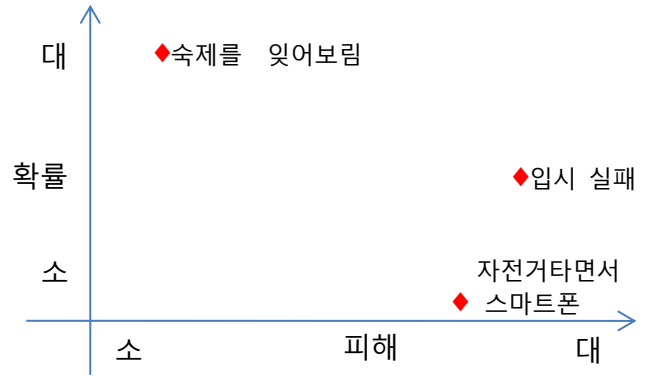
알래스카 대학이나 알람 대학 등의 학생들이 영
리더스 국제 교류 프로그램 등에 참가해서
의논이나 게임을 합니다. 그 중에서 그들도 일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저희 학생들도 상대방을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교류하고 있다. 같이
하지 않으면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좀처럼
생기지않을 겁니다.그런 자리를 조금이라도 많이
만들면 상호이해가 촉진된다. 방재뿐만 아니라 여러

형태가 생기고 또 확산되어 교류가 더 활발해질 겁니다. 말을 몰라도 표정과 태도로 위험을 알 수 있다. 훈련이든 뭐든 좋다. 같이 하자고 말을 걸어서 권유한다. 주눅이 들 수도 있지만 지역에 점점 말려들게 한다. 일본인들이 모두 친절하다. 모르는 사람에게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은 많다. 말을 몰라도 만나고, 말을 걸고, 같이 하면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NPO 등의 활동의 기회를 활용해서 교류를 넓히는 것도 중요합니다.그런 이유로 방재 위기 관리 트레이닝 센터를 만드려고 했습니다. 나고야대학에 가 보니까 거기에 감재 연휴 연구 센터라는 것이 있는데 그 곳은 시민이 배움터이기도 하는 겁니다. 또 고베시에 있는 사람과 방재 미래 센터는 수학여행온 학생이나 요즘에는 베트남에서도 견학하러 온다. 외국인 분들도 이해하기 쉬운 정보를 발신할 수 있다. 인재 육성을 도모해도 그것을 확산하기 위한 거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의 생활에서 방재를 위해 필요한 마음가짐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주변에 있는 리스크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자신이 목숨을 잃거나, 다치거나, 자신에게 불편하고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있는 리스크가 무엇인지, 생활속에서 일을 하는 속에서 얼마나 있는지 밝혀낸다. 가로축이 피해의 정도이고 오른쪽에 갈 수록 커지고 세로축이 확률이고 위에 갈 수록 높아진다.예를 들어 숙제를 잊어버릴 리스크는 확률은 높지만 피해는 그다지 크지 않다. 수험에 실패할 확률은 반반, 그러나 피해는 꽤 크다. 자신의 리스크를 도표로 만들어 보는 겁니다. 스마트폰을 하면서 자전거를 타면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리스크를 생각하는 겁니다. 지진,쓰나미,테로. 확률은 낮지만 목숨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성이 얼마나 있는지. 자신이 죽는을 확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등을 생각해보고 써내고 리스크 경감을 위한 대책을 새운다.이러한 확인 작업이 방재에 이어진다. 출장으로 호텔에 묵을 때는 반드시 비상구를

확인한다는등, 가까이에서 생각되는 리스크와 그 대처법을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면 결과는 아주 달라진다.없앨 수 있으면 제일 좋지만 없어지지 않을 경우에 적어도 확률을 줄여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실행한다.일어났을 경우에 어떻게 행동한다는 것까지 생각해 둔다.



■현민에게 무슨 메시지가 있습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이미 일어난 일을 후회해도 원상태로 돌아가지 않습니다.그 때 할걸 그랬다거나 장래 일을 끙끙 고민해도 결국은 될 대로 되는 수 밖에 없다.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여심히 하면 된다는 것이 제 모토.지금 이 순간을 아끼고 열심히 한다. 그것 밖에 없습니다.력비의 고로마루 선수도 텔레비전에서 말했 듯이 어떤 상황에서도 100 퍼센트 자신의 힘을 다 낸다. 지금 이 순간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을 한다. 끝까지 해 낸다. 자신이 놓여 있는 입장이나 상황에서 "지금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음이 보이는 겁니다.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올 이와테로 다 같이 하는 것이다.현청에 있었을 때도 위기관리감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면 뭐든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 테도를 보고 또 누군가가 찬동해서 그럼 다음에 이것 합시다! 식으로 이어진다. 방재든 뭐든 다 그렇다. 저절로 이어져간다. 외국인도 똑같은 것이다.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은 의외로 통하는 것 같습니다.같은 목적·목표로 향해 무조건 열심히 한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취재·글 : 오모리 후지오)

하나라도 많은 목숨이 살아나기 위해서

일본어를 모르는 외국인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저희 협회에서는 지금까지도 2011년 3월 11일에 발생한 동일본대지진이 외국인에게 미친 영향이나 복구상황에 대해서 발신해 왔습니다. 다국어판에서 발간한 "외국인의 3.11"에서는 "지진", "쓰나미", "피난장소"라는 말을 몰랐다. 이해하지 못 해서 패닉에 빠졌다. '외국인인 나는 뭘 해야 될 지 몰랐다.' '정보가 다국어이고 접하기 쉬웠으면, 불안을 해소할 수 있고, 자신도 지역의 일원으로서 협력할 수 있었을 지도 모른다.' 라는 외국인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생명의 귀중함은 모두 같다. 유사시, 일본어를 모르는 외국인을 어떻게 도와 주면 좋을까요?

2015년 11월 25일, 이와테현 국제 교류 협회에서는 모리오카 지역의 자치회 임원과 민생위원, 각 지자체의 외국인과 관련이 있는 부서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외국인과의 커뮤니케이션 강좌"를 실시했습니다. 이와테대학 글로벌 교육센터의 마츠오카 요코 준교수를 강사로 '언어에 의지하지 않고, 외국인에게 정보를 전하는 요령'을 배웠습니다. 베트남, 말레이시아, 한국, 프랑스, 중국의 유학생도 참석하여,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참가자와 토론을 했습니다. 외국인=외국어라는 개념을 걷어 치우고, 한사람 한사람이 이 조언을 염두에 두고 서로 도울 수 있으면 좋겠네요.

<전달 방법의 요령>

♡ 음성이나 문자로 일본어 정보 제공

짧고, 간단하게, 천천히, 명확하게.

언제?, 누구?, 어디? 무엇 때문에? 당신에게 어떤 도움이 된다? 를 여러가지 접근 방법으로 전한다.

(예)

「大津波警報が発令されました。海岸付近に居る方は高

台に避難してください」

'대쓰나미 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해안부근에 있는 분은 고지대에 피난하세요

→Tsunami warning is given, people near the coastline should evacuate immediately to a higher location. (다국어 대응)

→大きな波がきます。高いところに逃げてください。(쉬운 일본어)

보다 개별적인 대응으로는...

→쓰나미! Escape! Higher! 빨리! (복수 언어 대응)

→손을 잡고 같이 도망치기 (비언어)

※쉬운 일본어로 전하는 정보는 즉시성과 긴급성이 높은 것

※복잡한 정보, 권리 의무에 관한 정보는 번역·통역 등으로 대응

♡싸인, 소리, 그림 등 비언어수단의 정보제공도.

예를 들면, 색깔이 가지는 이미지를 유효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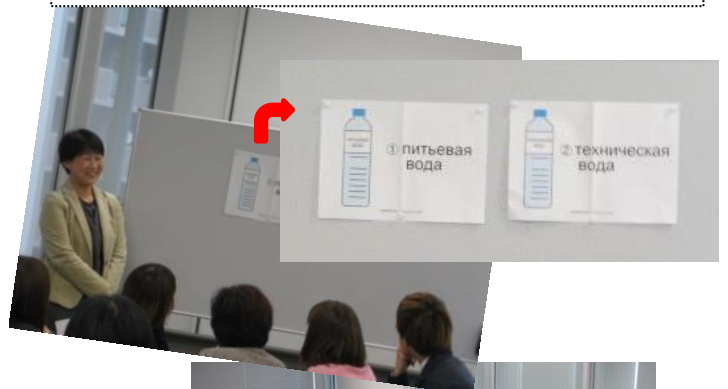
(예) 녹색은 안전, 노란색·빨강색은 위기감을 부채질한다... 등

저희 협회에서는 이러한 일반인을 위한 강좌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홈페이지 등에서 수시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종료후에는 Facebook에서 보고도 하고 있습니다. 꼭 체크해서 활용해 보십시오.

「대피소에서 받은 2통의 물병에는 본 적이 없는 글씨가 ... 여러분이라면, 어느 쪽의 물을 마십니까?」

'와~몰라, 어떻게'라는 참가자의 비명!

문자 정보로는 내용이 전해지지 않는 하나의 예



프랑스인 유학생의 시점 '몰랐다!'



“쉬운 일본어”가 외국인을 구한다.

히로사키대학 인문학부 사회 언어학 연구실에서는 재해가 일어났을 때 외국인 피해자에게도 빠르고 확실히 재해정보를 전해, 한 사람이라도 많은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쉬운 일본어” 추진, 보급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학생의 협력을 받아서 한 실험에서, “지시에 따를 수 있었던 가”의 성공률에 비약적인 차이가 생겨 구조에 있어 “쉬운 일본어”의 유효성이 실증됐습니다.

이 연구실에서 발행한 “외국인용 지진 재해 기초 어휘 100” 에서 최중요 30 단어와 일본어 능력 시험 1 급에서 2 급 및 그외의 어휘를 소개하겠습니다.

일본인 여러분은 “신속히”, “정확히” 그리고 “간결히”를 키워드로 다른 말로 말할 수 있도록, 외국인 여러분은 비상시에 순간적으로 이미지할 수 있도록, 평소부터 익숙해지기 바랍니다.

“외국인용 지진 재해 기초 어휘 100” 최중요 30 단어

순위	어휘	급	“쉬운 일본어”
1	地震	3	地震
2	倒れる	3	倒れる
3	揺れる	3	揺れる
4	水	4	水
5	落ちる	3	落ちる
5	怖い	3	怖い
7	学校	4	学校
8	避難	4	避難
9	家	3	家
10	食べる	3	食べる
11	ガラス	3	ガラス
12	音	3	音
13	逃げる	3	逃げる
14	壊れる	3	壊れる
15	割れる	3	割れる
16	潰れる	2	壊れる
16	電気	4	電気
18	助かる	2	生きている
19	震える	2	体が小さく震える
20	収まる	1	終わる
21	布団	3	布団
22	けが	3	ケガ
22	もらう	3	もらう
24	震度	급외	震度<地震の大きさ>
25	余震	급외	余震<あとから来る地震>
26	津波	1	津波<とても高い波>
26	体育館	급외	体育館
28	가스	3	가스
29	助ける	2	助ける
30	無事	2	生きている

“외국인용 지진 재해 기초 어휘 100”
일본어능력시험 1 급 ~ 2 급 및 그외의 어휘

위	어휘	급	“쉬운 일본어”
32	懐中	급외	手に持つ電気、電灯
37	叫ぶ	2	大きい声で言う
37	校庭	2	外で運動する広いところ
37	崩れる	2	壊れて落ちる
41	傾く	2	倒れるかも しれません
43	地面	2	道
43	被害	2	壊れる
47	ひび	1	割れている
49	給水	급외	水をもらうこと、水をもらうところ
54	ボランティア	급외	ボランティア<手伝う人> <手伝うこと>
54	揺れ	급외	地震
54	煙	2	火事に 気をつけてください
60	破片	2	小さく割れた ○○(名詞)
63	汲む	2	水を入れる
65	襲う	1	来る
65	地割れ	급외	道が割れている
68	マグニチュード	급외	マグニチュード<地震の大きさ>
68	救急車	급외	<病氣やケガをした人を助ける車>
74	大震災	급외	大きい地震
74	割れ	2	割れている
77	グラウンド	2	外で運動する広いところ
77	潜る	2	下へ入る
77	燃える	2	焼ける
77	下敷き	급외	ケガをした人
84	波	2	波
84	盛り上がる	1	道が壊れる
84	沈む	2	道が壊れる
84	ひび割れ	급외	割れている
90	瓦	2	上から物が落ちてくるかも しれません
90	ひび割れる	급외	割れる
90	消火器	급외	火を消す 道具
97	天井	2	上から物が落ちてくるかも しれません
99	心臓	2	胸

출처 : 히로사키대학 인문학부 사회언어학 연구실
<http://human.cc.hirosaki-u.ac.jp/kokugo/ej-top.html>

쓰나미의 위험과 대책에 대해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11 월 5 일이 “세계 쓰나미의 날” 로 인정되었습니다. 재해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생각하고 싶지 않지만,지진,쓰나미,태풍,폭우,화산폭발 . . . 언제 어디서 무엇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3 쪽으로 소개한 고시노 교수님의 “리스크와 확률”의 시뮬레이션에 더해,방재의식과 “살아남는 힘”을 더욱 높입니다. 오늘 (아니면 ○월○일)이 우리집의 방재 데이!라고 정해서 가족과 다시 한번 상의와 확인을 하는 기회를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떨습니까?
방재 수첩,피난 용품을 만들기 위해서 금방 할 수 있는 것을 정리했습니다.



20 분만에 만들자!방재수첩(우선은 피난경로와 연락수단)

- 방재지도는 있는가? (피난장소,위험구역,외국인 수용 피난장소를 알고 있는가?)
- 어디로 피난하는가? 가족을 만나는 장소는?
- 어린 아이나 도움이 필요한 노인은 누가 도와주는가?
- 연락이 안 될 때는? 친구,학교,직장 연락처 등의 정보는 어디에 적어두는가?

- ※NTT 나 휴대폰 등의 재해용 서비스를 이용하여 안부확인 방법을 확인합니다.
- 가지고 오면 좋은 것은? (약이나 생리용품등.피난용품의 보관장소는 ○○)
- 여권과 재류카드 사본,대사관 연락처는 준비하고 있는가?



20 분만에 준비하자! 피난용품

아래의 6 가지는 반드시 필요한 것 입니다.

- 1, 구급 약상자 2,마스크 3, 목장갑 4, 손전등 5, 휴대용 화장실 6,라디오

그외, 호루라기, 휴대형 충전기 등.

▼귀중품 파우치

- 현금 신분증, 건강 보험증, 예금 통장 사본
- 인감 메모,필기용구 등

▼피난용 배낭

- 헬멧 장화 음료수(1 명당 하루에 3ℓ)
- 식료품 (약 3 일분) 깡통따개,가위
- 간이 식기류 휴대형 가스레인지
- 의류등 (갈아입을 옷, 방한구 등)
- 라이터, 성냥, 양초 예비용 건전지 등

유사시 자신이나 가족은, 뭐가 필요한지, 예상되는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5 년전에 힘들었던 일,불안했던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가족과 대책을 상의하고,정기적으로 (예를 들면 가족 방재데이)에 확인이나 갱신을 하세요.각자가 평소부터 의식하고,상상하고,준비하는 (= 습관화하는) 것이 살아가는 힘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더 자세하게!<참고 정보>

이와테현 방재 페이지

<http://www.pref.iwate.jp/anzenanshin/bosai/index.html>

“이와테현 지역 방재 계획”이나 “유사시의 마음가짐”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와테 대학교 지역 방재 연구 센터

<http://rcrdm.iwate-u.ac.jp/>

강연회,포럼등의 개최 안내와 각종 활동보고 소개.

총무성 소방청 어린이 방재 e 랜드

<http://open.fdma.go.jp/e-college/eland/>

게임이나 퀴즈를 통해서 재해와 대책 지식이 몸에 익힐 수 있습니다.

NHK 대비하는 방재

<http://www.nhk.or.jp/sonae/>

“재해 만일 북”이나 “재해 만일 메뉴얼”을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재단 법인)지자체 국제화 협회 다국어 생활 정보

<http://www.clair.or.jp/tagengo/>

긴급 재해시의 대응을 포함한 생활 정보가 14 개국어로 소개돼 있습니다.

등록 & 활용해 주세요!
국제교류 서포터



◆일본어 서포터◆

일본어 회화 연습과 시험 대책 등, 외국인의 일본어 학습을 지원하는 자원봉사입니다. 일본어를 공부하고 싶은 외국인의 의뢰에 따라 일본어 교육 자격과 지도 경험이 있는 분, 회화 연습 상대를 등록되어 있는 분을 소개합니다.

◆다언어 서포터◆

통역, 번역을 통해서 외국인 생활을 서포트하는 자원봉사자입니다. 의료기관의 진료와 운전면허증 수속 등, 생활 상의 다양한 방면에서 통역과 번역이 가능한 분들이 등록해, 외국인과 여러 기관에서의 의뢰에 맞춰 소개합니다.

◆인재 활용 네트워크◆

국제교류, 협력의 경험, 기능을 가진 분과 어학이 뛰어난 일본인, 외국인이 등록하는 인재 은행입니다. 국제교류 이벤트에서 문화 소개 강사와 요리 강좌의 강사, 통역, 번역 등 의뢰에 맞춰 소개합니다.

◆호스트 패밀리◆

본 협회에 호스트 패밀리로 등록해 주시면, 외국인의 홈 스테이와 가정 방문 요청이 있을 때 희망 가정을 모집해, 호스트 패밀리 가정과 외국인을 소개합니다.

어떻게 하면 서포터 등록 또는 서포터와 강사에게 의뢰할 수 있을까요?

서포터 등록표 또는 의뢰표를 제출해 주십시오. 직접, 본 협회의 창구에서 기입해 주시거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한 등록표를 메일 또는 FAX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외국인 상담 창구를 이용해 주세요

일본어 학습과 의료, 복지, 육아 등 외국인 여러분의 다양한 상담을 받습니다.

◆일반 창구 (일본어, 영어, 중국어) ◆

매일 9시 ~ 20시

※영어, 중국어가 가능한 상담원이 없을 경우도 있습니다.

◆외국어 상담원에 의한 상담◆

중국어 : 화요일 ~ 금요일 12시반 ~ 18시반

한국어 : 수요일 15시 ~ 17시

영어 (필리핀 분도 상담가능): 목요일 15시 ~ 17시

※상담원이 없는 경우도 있으니, 사전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정기 상담일◆

재류자격(비자)과 일상의 곤란한 일, 고민 등을 행정 수속 전문가가 상담해 줍니다.

(예약 필수, 무료)

상담일 : 매월 제 3 수요일 15시 ~ 18시

국제교류센터를 편안하게 이용해 주세요

◆국내외, 현내외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현내외에서 국제교류에 관한 정보와 알리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또, 메세지 보드를 설치해 어학 파트너와 외국어를 가르쳐 줄 분의 모집 정보 등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국에 관한 다양한 물품을 대여합니다.

외국의 도서와 국기, 민족의상, 잡화 등을 대여합니다. 국제교류 이벤트를 개최할 때와 수업, 강좌 등에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학과 워킹 홀리데이, 국제이해, 일본어 교육에 관한 도서도 다수 대여하고 있습니다.

유카리 통신

이와테현과 "유카리(인연)"이 있는
해외에 거주하는 분이 현지의 모양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호주의 결혼식”

Jennifer Wu(제니퍼 우)씨

from 호주



모리오카에서 1년반 체류한 후, 호주에 귀국한 지 벌써 6년이 되었습니다. 귀국후에는 3년간 변호사로서 활동했고, 현재는 고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워크 라이프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고, 더 충실한 직업을 얻을 수 있어서, 이 결단에 만족합니다.

귀국후의 제일 큰 변화는 "결혼"입니다. 남편인 성엽과의 만남은, 모리오카에서 근무할 때 었습니다. 성엽은 한국 출신이고 하나마키에 있는 후지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2015년 11월 28일에 호주에서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떠오릅니다.

결혼식 스타일은 나라마다 다르겠지만, 성엽은 호주와 한국의 차이에 자주 놀랐습니다. 그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한 일들을 몇 개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1, 드레스 고르기

호주에서는, 또 많은 서양국가에서도 그렇겠는데, 신랑은 결혼식을 할 때 까지, 신부의 웨딩드레스를 볼 수 없습니다. 저는, 신부들러리(저의 경우는 사촌 동생들과 친구)가 같이 드레스를 골라 줬습니다. 성엽은 깜짝 놀라면서, 조금 실망도 한 모양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신부와 신랑이 같이 드레스를 고르는 것이 일반적이니까요.

2, 신부들러리와 신랑들러리

결혼하는 많은 커플들은, 결혼식 기획과 당일의 진행을 도와 주는 신부들러리 (bridesmaids) 와 신랑들러리(groomsmen) 를 정합니다. 들러리들에게는 결혼식이외에도 중요한 미션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부에게는 'hen's night', 신랑에게는 'buck's night'라는 이벤트를 개최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부 및 신랑의 독신 마지막날을 축하하기 위한, 여자만의 또는 남자만의 파티입니다.

제 들러리들은 릴렉스 스파에 데려다주고, 그 후에 맛있는 디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친 기획이 아니라서 다행이었습니다.

남자만의 'buck's night'는 아주 미친 내용으로 즐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성엽에게 그날 밤에 무엇을 했는지 무서워서 묻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3. 섬씽·포 (Something Four)

행운을 빌어 신부가 결혼식 때 몸에 걸치는 4개의 물건. 저는 이랬습니다.

- "뭔가 하나 오래된 물건(Something Old)" : 학생이 준 팔찌
- "뭔가 하나 새로운 물건(Something New)" : 웨딩드레스
- "뭔가 하나 빌린 물건(Something Borrowed)" : 헤어 피스
- "뭔가 하나 푸른 물건(Something Blue)" : 속옷!



4.사진촬영

한국에서는 많은 커플이 결혼전에 프로 카메라맨이 스튜디오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해줍니다. 성업은,호주에서는 당일애 사진촬영을 한다고 들어 놀랐습니다.

저희가 결혼식을 올린 회장은, 퀸스랜드의 로키어 밸리 (Lockyer Valley) 에 있는 아름답게 초록으로 둘러싸인 저택이어서 결혼식후에 촬영한 사진은 모두 다 예뻐습니다.

많은 기쁨과 웃음에 가득 찬 로맨틱한 하루였습니다. 가능하다면 다시 한 번 하고 싶습니다. (물론 같은 남자와!)



Jennifer Wu(제니퍼 우)

대만 출신. 9 살 때 가족과 호주에 이주. 2008 년부터 2009 년까지 국제교류원 (CIR : Coordinator for International Relations) 으로 이와테현에 배속. 현재는 브리스번 거주.귀국후 3 년간 변호사로서 활약한 후, 현재는 고등학교 교사로서 법률학,일본어,북경어를 가르치고 있음.



체류국 개요

국명 : 오스트레일리아 연방 (호주) (Australia)
면적: 769 만 2,024 제곱킬로미터(일본의 약 20 배, 알래스카를 제외한 미국과 거의 같다.)
인구: 약 2,391 만명(2015 년 10 월.호주통계국)
민족 : 앵글로 색슨계 등 유럽계가 중심. 그 이외에 중동계, 아시아계,원주민 등.
언어:영어
(출처:외무성 홈페이지 2015 년 11 월)

국제교류센터

(아이나 이와테현민 정보교류센터 5F)

■개관일 아이나 휴관일 외 매일

■개관시간 9:00-20:00

발행 공익재단법인 이와테현 국제교류협회

〒020-0045 모리오카시 모리오카에키 니시도리 1-7-1

TEL.019-654-8900 FAX.019-654-8922

E-mail. kikanshi@iwate-ia.or.jp

이와테 국제교류 Vol.79 2016

(공익재단법인 이와테현국제교류협회 기관지)

<http://www.iwate-ia.or.jp/>

E-mail :kikanshi@iwate-ia.or.jp